

# 실직자의 정서적, 인지적, 신체화 반응 및 대처 행동

김명언·노연희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실직의 일차적 영향을 경제적 곤란도로 정의하고 실직이라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개인의 상이한 반응과 대처행동을 조사해보고자 수행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특성 변인(강인성, 자존감의 저하, 성역할 가치관, 구직효능감, 귀인양식)과 사회적 지지 변인(정서 지지, 도구 지지, 종교적 지지)에 따라 개인의 정서 반응(우울, 불안, 적대감), 인지 반응(재취업 기대도), 신체화 반응 및 대처행동(기능적 대처, 역기능적 대처, 구직망의 폭)의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자료는 270명의 비자발적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 곤란도는 개인의 부정적 정서와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인성의 세 차원(통제, 몰입, 도전)은 개인의 정서반응, 재취업 기대, 기능적 대처와 역기능적 대처에 상이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직 이후 자존감이 저하할수록 부정적 정서반응과 신체화 증상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효능감은 재취업 기대와 기능적 대처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통적 성역할관은 구직망의 폭을 좁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변량분석 결과, 강인성-통제 차원은 경제적 곤란도와 상호작용하여 불안에 대해 조절효과를 나타냈고, 귀인양식도 경제적 곤란도와 상호작용을 하여 신체화 증상에 대해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사회적 지지 중 정서적 지지는 정서반응과 신체화 증상에, 도구적 지지는 재취업 기대와 기능적 대처에 영향을 미쳤고, 종교적 지지는 기능적 대처행동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결과들은 박탈이론과 행위자 제약이론 모두를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의의,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이 논의되었다.

우리사회에서 '실직'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일년여 사이며, 현재의 실직률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실업문제에 대한 노동경제학

적 접근과 사회적 파급효과에 관한 논의는 활발한데 반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는 장외로 밀려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직의 영향을 개인 수준에서 살펴보고, 개인특성 변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 자신의 열악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협조해주신 구직자들과 고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인과 사회적 지지 변인이 개인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 1. 연구 배경

### 1. 실직의 심리학적 의미

심리학적 관점에서 실직은 다음의 네 요소에서의 변화를 가져온다(Fryer & Payne, 1986; 김명언, 1998). 첫째, 실직은 고정수입으로 얻어지는 경제적 자원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자립감 상실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의 부실화를 가져온다. 둘째, 개인이 고용 조직과 자발적으로 맺은 상호관계가 비자발적으로 중단되어 권한 행사가 박탈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실직은 취업 시 가져온 소속조직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넷째로, 실직은 성취감, 자아실현, 자아정체감의 기반이 되어왔던 일(작업)의 상실을 의미한다.

### 2. 실직의 영향

실직에 의한 경제적 곤란도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psychological distress)은 경제적 곤란도로만 설명될 수 있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론이 계속되고 있다. 한 예로 Jacobson(1987)은 미국의 전문 기술직 종사자들의 비자발적 실직에 대한 연구에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있는 경우에는 실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만, 적절한 자원이 없는 경우 불안과 정서장애로 어려움을 겪음을 발견했다. 이외에도 실업으로 인한 불편감(unemployment distress)에 보다 잘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임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예, Payne & Hartley, 1987; Leana & Feldman, 1988, 1990). 반면에, Kieselbach와 Svensson(1988)은 실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무관하게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즉, 스웨덴의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업 첫 해에 실직 전 평균임금의 90%에 해당하는 보조금

을 받음으로써 실직으로 인해 생활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직으로 인해 상당한 심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스트레스 유발원으로서의 실직 실업은 상당히 스트레스적인 생활 사건으로 간주되어 왔다. 스트레스(stress)는 환경의 요구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의 대처자원간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되며(Hobfoll, 1989; Kessler, Price, & Wortman, 1985), 실직 상태란 환경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의 자원(수입, 소속조직 및 일 등)이 부족한 상태에 강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천이다. 따라서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개인의 반응(예, 우울, 불안, 신체화 증상, 적대감, 음주문제 및 가족 간 불화)을 야기한다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Jahoda, 1982; Kessler, Turner, & House, 1988).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비자발적 실직을 스트레스적인 삶의 사건으로 전제하고 실직자의 정서, 인지 및 대처행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과 개인 특성 요인의 효과를 스트레스-대처 모델을 설정하여 조사하였다(예, Kinicki & Latack, 1990; Leana & Feldman, 1988, 1992; Schaufeli, 1992; Vinokur, Caplan & Williamson, 1987).

### 3. 실직에 대한 반응

정서 반응 실직이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반적 견해는, 실업상태는 불안과 긴장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DeFrank & Ivancevich, 1986). Kasl과 Cobb(1982)의 연구결과에서도 실직 후 재취업이 된 집단보다 실직상태로 남아 있는 집단에서 불안과 긴장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Coates, Moyer, 그리고 Wellman(1969)도 높은 수준의 불안 증상을 보고한 사람들이 전년도에 경험한 가장 심각한 사건으로 실직 혹은 강등을 보고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인지 반응 실직에 관한 주요 인지적 반응은 실직에 대한 귀인과 재취업에 대한 기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명연, 1998). Prussia, Kinicki, 그리고 Bracker(1993)의 연구결과, 실직자들의 귀인요인은 내부와 외부로 나뉘며, 외부귀인의 요인들로 정부의 정책 실패, 경영진의 개인적 이익추구, 외국과의 경쟁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쇠퇴 등이 있으며, 내부귀인의 요인들로 나이, 기술부족, 성실성의 부족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Leana와 Feldman(1992)은 설문조사와 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의 분석결과, 거의 모든 실직자들이 자신의 실직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재취업에 대한 전망도 실직자의 인지적 귀인 반응의 결과로 간주하여 연구되어 왔다. Prussia 등(1993)은 실직에 대한 내부귀인과 지속적 요인으로서의 귀인은 재취업에 대한 기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 기대는 새로운 직업을 찾는 데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신체적 반응 고용여부에 따라 특정한 질병발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토한 Cook, Cummins, Bartley, 그리고 Shoper(1982)는, 신체적 질병을 보고한 사람의 수가 실업률과 함께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실업자들이 비실업자들보다 기관지염, 심근경색, 그리고 장애성 폐병(obstructive lung disease)의 발병율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실업자들과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교연구한 O'Brien과 Kabanoff(1979)도 질병의 특성상 경미하긴 하나(예, 기관지염, 알레르기 등) 실업자들이 보다 많은 신체적 이상 증상을 보고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심장 질환, 호흡의 가쁨, 시각에서의 문제 등도 실업자들이 더 많이 경험함을 보고하였다.

대처행동 실직은 개인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외상적인 사건 중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을(Holmes & Rahe, 1967)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실직이라는 스트레스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관

한 경험적 연구는 극히 적었다(Leana, Feldman, & Tan, 1998). 이는 실직자를 고용환경의 변화에 대한 수동적 희생자로 보는 '박탈(deprivation) 모델'(Jahoda, 1982)이 실직연구에서 우위를 점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실직자가 고용환경의 변화에 의한 희생양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완전히 수동적이지는 않음을 주장하고 있으며(Leana et al., 1998), 실직에 대해 구체적 대처방략을 선택하여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는 증거들이 제시되어 왔다(예, Caplan, Vinokur, Price, & van Ryn, 1989).

실직에 대한 대처는 실직에 의해 부여된 과중한 요구를 관리하려는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이고(Latack, Kinicki, & Prussia, 1995), 실직 상황 속에서의 심리적 안녕감을 얻으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Leana et al., 1998).

Leana와 Feldman(1990, 1992)은 실직자들이 여섯 유형의 대처행동을 보일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중 세 가지는(주도적 구직활동, 직업 재교육이나 훈련에 참가하기, 지리적 이동을 시도하기) 문제중심적 활동으로, 나머지 세 가지는(실업보험 이상의 경제적 지원 신청, 해직 반대와 같은 지역 단체 활동에의 참여, 사회적 지지 추구) 증상중심적 행동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실직상황에서 문제중심적 대처활동은 주로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증상중심적 대처 행동은 주로 실직과 관련된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았다. Kinicki와 Latack(1990)은 대처행동이 적극적이고 통제 지향적인 대처와 회피적인 대처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행동계획을 세우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 사고를 하는 것은 통제 지향적 대처로 간주할 수 있는 반면, 사람이나 상황과 떨어져서 혼자 있고자 하고 만사를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회피적 대처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다.

## II. 연구 목적 및 가설

본 연구는 실직이라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실

직자들은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가에 대해 개인수준에서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아울러 개인특성 변인과 사회적 지지 변인이 실직자의 주관적 경험 및 반응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 1.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도와 실직자의 반응

Jahoda(1981)와 Warr(1983)는 실직은 가정의 경제적 생활수준의 갑작스러운 저하를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생계유지 자체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은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에만 설명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Winefield, 1995), Jacobson(1987)과 Kessler, Turner 그리고 House(1987) 등의 경험적 연구 결과들은 실직자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이 불안, 우울, 적대감, 신체화 증상 등의 부정적 반응을 야기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직의 일차적 효과를 경제적 곤란도로 정의하고, 이러한 경제적 곤란도가 실직자 개인의 다양한 차원에서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다음과 같은 가설과 예언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도는 개인의 정서, 인지 및 신체화 반응 그리고 대처행동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예언 1-1〉 실직자가 느끼는 경제적 곤란도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정서, 즉 불안, 우울, 적대감을 보다 많이 나타낼 것이다.

〈예언 1-2〉 실직자가 느끼는 경제적 곤란도가 높을수록 재취업에 대한 기대는 낮을 것이다.

〈예언 1-3〉 실직자가 느끼는 경제적 곤란도가 높을수록 신체화 증상을 보다 많이 나타낼 것이다.

### 2. 개인특성 변인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개인특성에 따라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간에 정서, 인지 및 신체 반응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개인특성이 갖는 효과를 검증해 보는 것이다.

DeFranck와 Ivancevich(1986)는 강인성 성격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실직의 부정적 영향에 취약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강인한 사람들은 실직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반응하고,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실직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려 하고 적극적으로 일 자리를 찾는 반면, 강인성 수준에서 낮은 사람들은 실직 상황을 위협으로 지각하고 책임전가의 대상을 찾고 수동적으로 반응하며 심각한 우울 정서를 경험할 수도 있다(Kets De Vries & Balazs, 1995). Leana와 Feldman(1990)도 강인성 성격요인이 갖는 실직의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자존감 수준이 실직에 대한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 Shamir(1986)는 실직상태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에게 비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이 보다 현저히 저하됨을 보고하였다. 또한 Jex, Cvetanovski, 그리고 Allen(1994)도 자존감이 실업상태와 불안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여성들 사이에서 실업이 높은 불안과 우울 수준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개인특성으로 성역할관을 고려해 볼 수 있다. Brah(1986)는 실직과 관련된 개인의 경제, 사회적 고통에 관한 논의에서 남성을 생계책임자(breadwinner)로 보는 이데올로기가 남성들의 실직으로 인한 고통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심리적 압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하였다. Binns와 Mars(1984)는 가정에서의 남성 우위성을 지속시키기 위한 주요 기제로서 남성들의 고용유지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용상

태가 불안정할수록 가족들은 전통적 성역할을 덜 태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은 직장 일을, 여성은 가사를 일차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분할적 성역할 기대가 뿌리깊게 남아있어(이효재, 1989), 우리 나라 상황에서 실직은 서구에 비해 더 큰 심리적, 사회적 압박감을 야기할 수 있다. 김명언(1998)은 유교적 가치관이 팽배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 성역할관을 갖는 남성 실직자가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압박감을 더 크게 느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직에 대한 귀인양식 또한 개인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inefield, Tiggemann, 그리고 Winefield(1992)는 내부귀인을 하는 사람들이 외부귀인을 하는 사람들보다 절망감을 크게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였다. Prussia 등(1993)은, 실직에 대한 내부귀인과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요인으로서의 귀인(예, 노력으로 극복될 수 없는 능력, 성격 등)은 재취업에 대한 기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 기대는 구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을 발견하였다.

구직 활동에서의 자기효능감은 성공적인 구직활동을 해낼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을 의미한다. (Wanberg, Watt, & Rumsey, 1996) Kanfer와 Hulin(1985)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구직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재취업률이 증가했음을 보고하였다. Rife와 Kilty(1990)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구직을 중단한 실업자들이 자기효능감을 덜 갖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Caplan 등(1989)과 Eden과 Aviram(1993)은 자기효능감 증진 훈련을 받은 실업자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재취업했음을 발견하였다. 이같은 선행 연구 결과들은 구직 활동에서의 자기효능감이 실직에 대한 반응과 대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인특성 변인들과 실직간의 관련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과 예언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실직자의 강인성 정도는 실직에 대한 개인의 반응과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언 2-1〉 강인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적게 보일 것이다.

〈예언 2-2〉 강인성이 높을수록 신체화 증상을 덜 나타낼 것이다.

〈예언 2-3〉 강인성이 높을수록 재취업에 대한 기대를 높게 가질 것이다.

〈예언 2-4〉 강인성이 높을수록 역기능적 대처행동은 적게 보이고 기능적 대처행동은 보다 많이 보일 것이다.

〈가설 3〉 실직으로 인한 자존감의 저하 정도는 실직에 대한 개인의 반응과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언 3-1〉 실직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가 적을수록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적게 보일 것이다.

〈예언 3-2〉 실직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가 적을수록 신체화 증상을 덜 나타낼 것이다.

〈예언 3-3〉 실직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가 적을수록 재취업에 대한 기대는 보다 높게 보일 것이다.

〈예언 3-4〉 실직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가 적을수록 역기능적 대처행동을 적게 보이고 기능적 대처행동을 보다 많이 보일 것이다.

〈가설 4〉 실직자의 성역할 가치관은 실직에 대한 개인의 반응과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언 4-1〉 기혼인 남성들의 경우, 성역할 가치관이 전통적일수록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보다 많이 보일 것이다.

〈예언 4-2〉 기혼인 남성들의 경우, 성역할 가치관이 전통적일수록 신체화 증상을 많이 나타낼 것이다.

〈예언 4-3〉 기혼인 남성들의 경우, 성역할 가치관이 전통적일수록 역기능적 대처행동은 보다 많이, 기능적 대처행동은 보다 적게 보일 것이다.

〈가설 5〉 실직자의 귀인양식은 실직에 대한 개인의 반응과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언 5-1〉 실직에 대한 귀인에 있어서 외부귀인 보다 내부귀인을 많이 할수록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보다 많이 보일 것이다.

〈예언 5-2〉 실직에 대한 귀인에 있어서 외부귀인 보다 내부귀인을 많이 할수록 신체화 증상을 보다 많이 보일 것이다.

〈가설 6〉 실직자의 자기효능감은 실직에 대한 개인의 반응과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예언 6-1〉 구직활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클수록 재취업에 대한 기대는 높게 가질 것이다.

〈예언 6-2〉 구직활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클수록 기능적 대처행동을 보다 많이 보일 것이다.

### 3. 사회적 지지

중요타인들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대처자원으로 확인되어 왔으며(Cohen & Wills, 1985), 실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도 순기능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Gore, 1978). 즉, 보다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은 실직자들이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받은 실직자들보다 실직으로 인한 정신건강의 악화 증후를 적게 보였다(Ensminger & Celentano, 1990; Siegert, Chung, & Taylor, 1990). 특히 실직이란 사건은 실직전 누려왔던 사회적 연결망의 상당부분(예로, 직장동료)을 끊어놓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가족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사회적 지

원은 필수적이다. Shams(1993)은 실직 후 가족들의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들의 심리적 건강 유지에 중요한 기여를 함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입증했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실직자의 배우자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는 실직 스트레스 완화에 결정적 도움을 준다.

또한 종교적 지지도 실직으로 인한 부정적 경험을 줄일 수 있다. 영국계 아시아인들 중 남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Shams와 Jackson(1993)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앙심의 단독함 여부가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않았으나, 실직자들의 경우에는 신앙심이 단독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 지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과 예언을 세웠다.

〈가설 7〉 실직자의 배우자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는 실직 스트레스 경험 및 대처방식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예언 7-1〉 실직자들이 배우자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부정적 정서반응을 적게 보일 것이다.

〈예언 7-2〉 실직자들이 배우자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신체화 증상은 덜 나타낼 것이다.

〈예언 7-3〉 실직자들이 배우자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재취업에 대한 기대는 높게 가질 것이다.

〈예언 7-4〉 실직자들이 배우자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역기능적 대처행동은 덜 보이고, 기능적 대처행동은 보다 많이 적게 보일 것이다.

〈가설 8〉 실직자가 가지는 종교적 지지는 실직 스트레스 경험 및 대처방식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예언 8-1〉 실직자들이 종교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적게 보일 것이다.

〈예언 8-2〉 실직자들이 종교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신체화 증상은 덜 나타날 것이다.

〈예언 8-3〉 실직자들이 종교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역기능적 대처 행동을 덜 나타내고, 기능적 대처 행동은 보다 많이 보일 것이다.

#### 4. 실직에 대한 정서, 인지, 신체 반응과 대처 행동간의 관계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직과 같은 불확실하고 위협적이며 혼란스런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이 세 가지 방식으로 반응한다 (Folkman & Lazarus, 1980). 첫 번째는 스트레스 사건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그러한 사건이 원상 회복 가능한지, 그리고 그러한 사건을 자기 통제감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기 통제력밖에 있는 외부요인에 의해 어쩔 수 없는 것인지를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 우울, 불안과 무기력감을 경험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섭식과 수면장애나 약물과 알코올 남용 등의 신체적인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Leana와 Feldman(1992)은 실업으로 경험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 정서, 신체 반응이 개인을 활력적으로 혹은 무기력하게 만드는가에 따라 개인들이 선택하는 대처행동의 유형이 달라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사람들이 실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덜 보일수록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처 활동을 많이 나타내는 반면, 실직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나타낼수록 부적 정서의 완화에 초점을 맞춘 대처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실직자들은 구직을 위해 접촉하는 사람들이나 관련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도 그 범위를 제한할 것이다. 이같은 구직망의 협소화는 구직활동의 성공률을 저하시킨다.

이상의 기존 연구들은 실업으로 인한 부적 정서 경험, 실업에 대한 자기 통제가 어려운 요인에의 귀인, 신체화 증상 등은 근본적 문제해결보다는 부적

정서의 단기적 완화만을 위한 대처행동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직에 대한 정서, 인지, 신체 반응과 대처 행동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 및 예언을 설정하였다.

〈가설 9〉 실직 이후에 부정적 정서, 신체화 증상을 많이 경험할수록, 그리고 재취업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일시적 증상 완화를 위한 대처행동을 보다 많이 보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과 예언들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실직으로 인한 일차적 효과를 경제적 곤란도로 정의하고, 개인이 지각한 경제적 곤란도가 정서, 인지, 신체 및 대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 곤란도가 개인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개인특성 변인과 사회적 지지가 조절 효과를 갖는지 또는 직접효과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곤란도로 정의된 실직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 인지, 신체 반응과 대처 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절차

서울, 전북 및 경남 인력은행에 구직신청을 하러 온 재취업 신청자,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및 고용안정센터에 온 실업급여 신청자들 중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자료수집은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무기명으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설문 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보장하였다. 최종 회수한 설문지는 315부였으나,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퇴직 사유와 자발적 퇴직의 정도를 표시하는 문항에서 자발적 이직자로 여겨지는 45명을 제외한 270부가 최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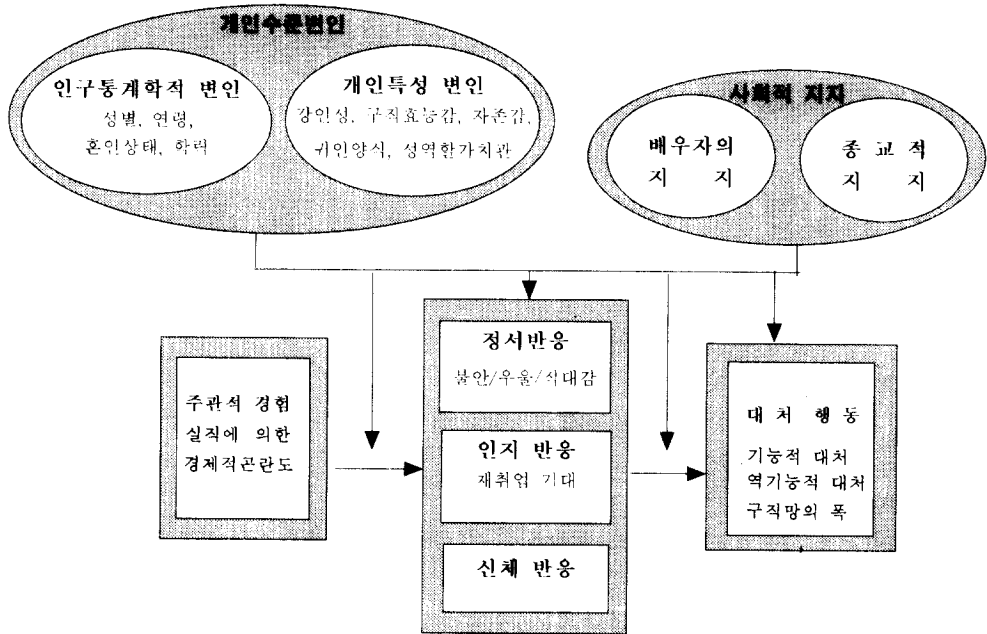


그림 1. 실직자의 반응모형

분석에 포함되었다.

## 2. 변인들의 측정

경제적 곤란도 실직이 경제적 문제로 느껴지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전혀 문제가 안된다면 1, 대단히 문제가 되면 5로 평정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경제적 곤란도와 함께, '퇴직 후 가계의 총수입'과 '현재의 가계 총재산으로 앞으로 얼마나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주관적 지표 한 문항과 객관적 지표 두 가지간에는 각각  $-0.40(p < .001)$ 과  $.50(p < .001)$ 의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경제적 곤란도가 객관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지표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sup>1)</sup>

**정서 반응** 정서 반응의 측정을 위해 김광일, 김재환 및 원호택(1984)이 표준화한 간이 정신진단 검사(Symptom Checklist-Revised; SCL-90-R)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직과 관련하여 이전 연구자들이 주로 다루어온 불안, 우울, 적대감의 세 하위척도만 선정하였고, 불안(예로,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된다), 우울(예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적대감(예로, 다른 사람과 잘 다툰다)을 측정하는 하위척도에서 각각 일곱, 여덟, 다섯 문항씩을 사용하였다. 불안, 우울 및 적대감의 정서 반응은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이 나타내는 증상이 전혀 없다면 0, 매우 심하다면 4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불안, 우울 그리고 적대감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각각 .92, .90, .84이었다.

1) 경제적 곤란도에 대한 이들 세 항목을 종합한 점수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에도 본 논문에 보고된 분석결과에서 차이가 없었다.



인지 반응 인지반응으로 재취업 기대도를 측정하였다. 재취업에 대한 기대는 응답자가 재취업할 가능성을, 완전보장을 100%라고 했을 때 얼마로 보는지 기입하게 하였다. Kinicki(1989)는 재취업에 대한 기대를 가능성 없음(1)에서 100%(5)로 5점 척도 상에서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세밀한 평정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백분율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재취업 기대' 척도는 Leana와 Feldman(1992)이 사용한 '재취업 전망' 척도<sup>2)</sup>와 높은 상관( $r = -.61, p < .001$ )을 보였다.

신체 반응 신체 반응 역시 간이 정신 진단 검사의 하위척도 중 신체화 척도 12개 문항을 모두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신체 증상들의 정도를 측정해 주는 '머리가 아프다', '팔다리가 묵직하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정서반응과 마찬가지로 증상이 전혀 없다면 0, 매우 심하다면 4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 $\alpha$ )는 .91이었다.

대처 행동 실직상황에 적합한 Kinicki와 Latack(1990)의 대처행동 척도와 Leana와 Feldman(1992)의 문항을 일부 사용하여 총 19개 문항으로 행동반응을 측정하였다. 응답은 '0: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동반응들은 요인분석을 통해 역기능적 대처(8문항: 예로, 보통 때보다 더 오래 잔다)와 기능적 대처(11문항: 예로,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접촉하고 있다)로 분류되었고, 두 대처유형별로 종합점수가 계산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기능적 대처행동 척도는 .72, 역기능적 대처행동 척도는 .65의 신뢰도를 보였다.

구직활동의 관계망 크기 재취업을 위해 접촉할 수 있는 경로를 구직활동의 관계망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자들이 '실직한 아버지 모임'에 참가하여 수집한 자료와 Michigan 대학의 사회조사연구소(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에서 제작한 JOBS II Survey(Vinokur & Price, 1991)를 바탕으로 10개의 구직경로(예로, 인력은행, 신문 구직광고, 민간단체 등)를 설정하였다. 응답자에게 이들 10개의 경로별로 재취업을 위해 접촉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체크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능적 대처 행동의 한 측면인 구직활동의 간접 지표로 사용하였다. 표시한 경로의 총합은 0에서 10으로 총합이 클수록 구직활동의 관계망이 넓은 것으로 보았다.

강인성 Kobasa(1979)가 제시한 개념에 맞춰 일부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강인성의 세 하위 차원 중 도전 차원(예로, 안정적인 일보다 변화가 많은 일을 선호한다)과 몰입 차원(예로, 매사에 푹 빠져들어 일하는 것을 즐긴다)에서 각각 세 문항, 통제 차원(예로,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부분 내가 하기 나름이다)에서 네 문항을 선택하여 총 10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문항에 대한 응답은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 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 상에서 답하도록 하였다. 세 차원의 신뢰도는 .50로 다소 낮았다.

자존감의 저하 자존감은 Rosenberg(1965)의 총체적 자존감(global self-esteem) 척도에서 6개 문항(예로,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을 사용하였다. 자존감은 실직 전과 실직 후로 나누어 두 번 평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면 1에, 매우 그렇다면 7에 표기하도록 하였고 각

2) 이들은 재취업에 대한 네 가지 전망을 제시하였다.(1) 빠른 시일 내에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 얻을 것임.(2)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를 얻을 것이나,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임.(3) 새 일자리를 얻을 것이나, 이전보다 못할 것이고, 어느 정도 시간도 걸릴 것임.(4) 새 일자리를 얻기 힘들 것임.

각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73과 .79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인 '자존감 저하의 정도'는 실직 전 자존감 점수에서 실직 후 자존감 점수를 뺀 값이다.

귀인양식-내부귀인과 외부귀인 실직의 원인들은 Prussia 등(1993)과 Leana와 Feldman(1992)이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얻어낸 연구결과에 본 연구자들이 '실직한 아버지 모임'에 참가하여 수집한 자료들을 추가시켜, 18개의 실직의 잠재적 원인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 결과, 내부귀인 10개(예로, 실직의 원인은 나의 노력부족이 원인이다), 외부귀인 8개(예로, 정부의 외환정책 실패)로 두 요인으로 나누어 졌고, 각각 .80과 .74의 신뢰도를 보였다. 각 원인 항목에 대해 퇴직의 원인이 아니면 0, 어느 정도 원인이면 1, 상당부분 원인이라면 2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내부귀인과 외부귀인의 점수는 각각 따로 계산한 후, 외부귀인 점수에서 내부귀인 점수를 뺀 차로 '외부귀인 정도'라는 척도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성역할 가치관 성역할 가치관은 실직 전과 실직 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먼저 성역할 가치관은 두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Quinn과 Staines(1979)의 역할 문항 중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한 문항(가정의 경제적 책임은 남편이 져야한다)과 Spence와 Helmreich(1988)의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Attitude toward women scale)에서 사용된 한 문항(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가 가정과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가족 모두를 위해 적합)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회상을 통해 실직 전 성역할 가치관을 측정하였다. 성역할 가치관 점수는 7점 척도로 계산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성역할 가치관을 나타내며, 신뢰도는 .70이었다.

구직활동의 자기효능감 구직활동에 대해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구직활동의 자

기효능감'은 Michigan 대학의 사회조사연구소(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에서 제작한 JOBS II Survey(Vinokur & Price, 1991)의 6 문항을 사용하였다(예로, 구인자에게 내가 적합한 사람임을 설득하는데 자신이 있다). 대해 평정하도록 하였고, 응답은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상에서 답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80이었다.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 Abbey, Abramis, 그리고 Caplan(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토대로 하여 Michigan대학의 사회조사연구소(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에서 제작한 JOBS II Survey(Vinokur & Price, 1991)의 문항 중에서 정서적 지지(예로, 내가 신경질을 부릴 때 내 기분을 풀어준다)와 자존감 지지(예로, 내 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표현하고 격려해 준다)에 관한 문항을 각각 세 문항씩 선정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 중 도구적 지지(예로, 용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준다)와 정보적 지지(예로, 나를 위해 구직정보를 수집해 준다)는 각각 세 문항으로 Cohen과 Wills(1985)가 제시한 개념을 토대로 실직 상황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였다. 배우자로부터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회적 지지를 주관적으로 평정하도록 하였고, 응답은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상에서 답하도록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서적 지지와 자존감 지지를 하나의 요인으로, 정보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를 다른 하나의 요인으로 묶고, 각각을 보다 포괄적인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로 명명하였으며, 요인별 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고, 각 요인별 신뢰도는 .85와 .73이었다.

종교적 지지 종교활동을 통해 심적 위안을 받는 정도를 의미하는 '종교적 지지' 척도를 평정하게 하였다. 응답은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상에서 답하도록 하였다.

#### IV. 연구결과<sup>3)</sup>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예언변인들이 갖는 인지, 정서, 신체 반응 및 대처 행동에 대한 독립적 설명량을 알아보고자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sup>4)</sup>

##### 1. 정서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자존감 저하, 경제적 곤란도, 정서적 지지, 강인성-통제 차원의 네 변인이 정서 반응 중 ‘불안’에 대해 갖는 설명량은 각각 16%, 8%, 3.6%, 2%였다.

정서반응 중에서 ‘우울’의 경우, 자존감 저하, 경제적 곤란도, 정서적 지지의 세 변인은 각각 28%, 8%, 2.8%의 설명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적대

표 1. 불안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인	Beta	t(유의도)	Δ R <sup>2</sup>
자존감 저하	.299	4.088(.000)	.159***
경제적 곤란도	.242	3.326(.001)	.080***
강인성-통제	-.158	-2.097(.038)	.036**
정서적지지	-.154	-2.039(.043)	.020*
(R <sup>2</sup> =.276)			

\* p<.05, \*\*p<.01, \*\*\*p<.001

표 2. 우울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인	Beta	t(유의도)	Δ R <sup>2</sup>
자존감 저하	.472	7.198(.000)	.281***
경제적 곤란도	.243	3.603(.000)	.083***
정서적지지	-.177	-2.614(.010)	.028**
(R <sup>2</sup> =.380)			

\*\*p<.01, \*\*\*p<.001

감’에 대해서는 자존감 저하, 정서적 지지, 경제적 곤란도, 강인성-통제 차원의 네 변인이 11.8%, 8.2%, 4.3%, 2.4%의 설명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적대감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인	Beta	t(유의도)	Δ R <sup>2</sup>
자존감 저하	.239	3.205(.002)	.118***
정서적 지지	-.192	-2.510(.013)	.082***
경제적 곤란도	.221	2.990(.003)	.043**
강인성-통제	-.168	-2.207(.029)	.024*
(R <sup>2</sup> =.247)			

\* p<.05, \*\*p<.01, \*\*\*p<.001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실직자 개인이 느끼는 경제적 곤란도가 클수록 부정적인 정서, 즉 불안, 우울 및 적대감을 보다 높게 나타낼 것이라는 〈예언 1-1〉이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강인성의 몰입, 통제, 도전이라는 세 하위 차원별로 개인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세 요인을 나누어 중다회귀분석의 선행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강인성의 ‘통제’ 정도가 부정적 정서 중 ‘불안’과 ‘적대감’에 대해 각각 2%, 2.4%의 설명량을 나타내어 〈예언 2-1〉에서의 강인성에 대한 예언 중 일부만 지지되었다.

자존감 저하의 정도가 적을수록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덜 나타낼 것이라는 〈예언 3-1〉대로 자존감의 변화가 불안, 우울, 적대감에 대해 각각 16%, 28%, 8.2%의 설명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이란 자기를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자신에 대해 호감을 갖는 정도이다. 실직을 전후하여 이러한 자존감이 저하함에 따라 개인은 우울, 불안과 적대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역시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 두

3) 측정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4) 한 심사위원은 본 연구의 유의미한 결과들은 많은 변수들과 204명의 자료를 사용하였기에 우연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바로 이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단순상관계수 분석이 아닌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으로 나누어 중다회귀분석에 투입한 결과, 정서적 지지만이 불안 3.6%, 우울 2.8%, 적대감은 12%를 설명하고 있어 <예언7-1>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개인은 부정적 정서를 덜 경험하게 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정서반응에 대한 나머지 예언들(4-1, 6-1)은 지지되지 않았다.

## 2. 인지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구직효능감(18%), 강인성-도전 차원(3.6%), 도구적 지지(2.5%), 강인성-통제 차원(5.2%)의 다섯 가지 변인들이 '재취업에 대한 기대'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인성 정도가 높을수록 재취업 기대를 높게 할 것이라는 <예언2-3>을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특이한 점은 강인성의 도전 차원이 재취업 기대를 유의미한 수준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강인성의 도전차원의 정도가 높은 사람들은 인지적 융통성을 지니고,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새로운 상황이 주는 위협을 긍정적으로 통합하며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자기 성장을 시도한다는 Kobasa (1979)의 주장을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표 4>에 제시되었듯이, 구직활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재취업 기대에 대해 가장 많은 설명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예언 6-1>이 지지되었다.<sup>5)</sup>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는 도구적 지지만이 재취업 기대를 높여 주는 것으로 나타나 <예언7-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반면에 경제적 곤란도는 재취업 기대에 대해 독립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량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언1-2>는 지지되지 못하였다.

표 4. 재취업 기대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인	Beta	t(유의도)	Δ R <sup>2</sup>
구직효능감	.343	4.737(.000)	.179***
강인성-통제	.210	2.959(.004)	.052**
강인성-도전	.204	2.834(.005)	.036**
도구적지지	.161	2.278(.024)	.025*
(R <sup>2</sup> = .272)			

\* p<.05, \*\*p<.01, \*\*\*p<.001

표 5. 신체화 증상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인	Beta	t(유의도)	Δ R <sup>2</sup>
정서적 지지	-.269	-3.575(.000)	.133***
자존감 저하	.240	3.282(.007)	.067***
경제적 곤란도	.218	2.903(.004)	.044**
(R <sup>2</sup> = .227)			

\*\*p<.01, \*\*\*p<.001

## 3.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

<표 5>에 제시되었듯이, 정서적 지지(13%), 자존감 저하(6.7%), 경제적 곤란도(4.4%)가 '신체화 증상'에 유의미한 설명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자 개인이 느끼는 경제적 곤란도가 높을수록 신체화 증상의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예언 1-3>이 지지되었다.

자존감 저하가 적을수록 신체화 증상을 덜 나타낼 것이라는 <예언3-2>도 지지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의 두 요인 중 정서적 지지만이 신체화 증상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어, 배우자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신체화 증상을 덜 나타낼 것이라는 <예언7-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5) 본 연구에서는 구직 효능감을 구직자가 구직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나 자격증을 구비하고 있는 정도, 취업정보의 수집 능력, 구인자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전달하는 능력 등에 대한 자신감 정도로 정의하였다. 반면에 재취업에 대한 기대감은 구직 성공(재취업)이라는 구직활동의 최종산물의 획득 가능성 정도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이들 둘간의 높은 상관계수(r = .42)를 근거로 이들 두 척도는 동의반복이라는 한 심사위원의 주장은 부적합하고, 오히려 구직 효능감은 재취업 기대감의 일부분(최대 16% 설명량)에만 관련되었다는 것(즉, 현재 가용한 일자리 수, 경기전망, 개인특성 등의 변수들이 재취업 기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계수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반면에 개인특성 변인 중 강인성, 귀인 양식 그리고 종교적 지지가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예언2-2>, <예언5-2>와 <예언8-2>는 지지되지 못하였다.

#### 4. 대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대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규명과 각각의 독립적 설명량을 알아보기 위해 개인특성 변인, 사회적 지지와 더불어 부정적 정서반응, 재취업 기대도 및 신체 반응을 예언변인으로 함께 포함시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정서, 인지, 신체화 반응을 일차적 결과로, 대처 행동을 이차적 결과로 보고 일차적 결과가 이차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역기능적 대처에 대해서는 부정적 정서반응, 강인성-통제와 몰입 차원, 그리고 신체화 증상이 유의미한 설명량을 갖는 것으로

표 6. 역기능적 대처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인	Beta	t(유의도)	Δ R <sup>2</sup>
부정적 정서 반응	.270	2.908(.004)	.219***
강인성-통제	-.233	-3.181(.002)	.054**
강인성-몰입	-.152	-2.188(.030)	.023*
신체화증상	.185	2.023(.045)	.020*
(R <sup>2</sup> =.315)			

\* p<.05, \*\*p<.01, \*\*\*p<.001

표 7. 기능적 대처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인	Beta	t(유의도)	Δ R <sup>2</sup>
구직효능감	.321	4.294(.000)	.126***
종교적 지지	.206	2.877(.005)	.058**
강인성-몰입	.195	2.613(.010)	.041**
신체화증상	.228	3.119(.002)	.037**
도구적 지지	.154	2.100(.038)	.022*
(R <sup>2</sup> =.283)			

\* p<.05, \*\*p<.01, \*\*\*p<.001

로 나타났다. <표 7>에 제시되었듯이, 기능적 대처 행동에 대해서는 구직효능감, 종교적 지지, 도구적 지지 그리고 신체화 증상, 그리고 강인성의 몰입 차원이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다. 개인이 접촉하는 구직 경로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구직망의 폭은 구직효능감만이 유의미한 독립적 설명력(7%)을 지니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가지고 관련된 가설 및 예언을 검증해보면 다음과 같다. 부정적 정서(불안, 우울, 적대감)는 역기능적 대처행동에, 신체화 증상은 역기능적 대처행동과 기능적 대처행동 모두에 대해서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어 <가설9>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강인성의 몰입 정도가 높을수록 기능적 대처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인성의 통제 차원에서 높을수록 역기능적 대처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인성이 기능적 대처행동에 대해선 증가효과를, 역기능적 대처행동에 대해 강인성이 감소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예언2-4>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반면에 자존감 저하는 대처 행동의 어떤 측면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언3-4>는 지지되지 못하였다. 한편 구직효능감이 기능적 대처 행동과 구직망의 폭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구직효능감이 클수록 기능적인 대처 행동을 많이 할 것이라는 <예언 6-2>는 지지되었다.

배우자로부터의 도구적 지지만이 기능적 대처 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함으로써,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기능적 대처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언3-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그리고 종교적 위안은 기능적 대처행동만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예언8-3>도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 5. 성역할 가치관이 실직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

<가설4>를 검증하기 위해 기혼 응답자들을 남성

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역할 가치관은 기혼남성의 구직망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설명량( $\Delta R^2=.05$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망에 대해 성역할 가치관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22$  이었고, 기혼남성 실직자의 성역할관이 전통적일수록 구직망의 폭이 좁아짐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어떤 종속변인들과도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sup>6)</sup>

### 6. 경제적 곤란도, 개인특성 변인 및 사회적 지지의 종속 변인에 대한 상호작용효과<sup>7)</sup>

〈그림 1〉에 제시된 가설적 모델이 시사하듯,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선행변인들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실직의 일차적 결과인 경제적 곤란도는 개인특성이나 사회적 지지 변인들과 상호작용하여 이차적 결과인 정서, 인지 그리고 신체화 반응을 바꿀 수 있다. 즉, 개인특성 변인이나 사회적지지 변인들이 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같은 조절효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 변인들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첫째, 실직자들이 경험하는 불안 정도에 대해서 경제적 곤란도와 강인성의 통제차원의 상호작용효과( $F=2.134, p<.10$ )가 있었다. 전체 빈도를 참조하여 응답자들이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된다’, ‘별로 문제가 안된다’, ‘약간 문제가 된다’에 답했다면 ‘1(하)’, ‘상당히 문제가 된다’에 답했다면 2(중), ‘대단히 문제가 된다’라고 답했다면 3(상)의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강인성-통제 차원에서도 전체 응답자를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즉, 강인성의 통제차원 점수에서 하위 33.3%를 ‘통제 하’, 중간 33.3%를 ‘통제 중’, 상위 33.3%를 ‘통제 상’ 집단으로 분

류하였다. 이들 세 집단간 통제 차원에서의 평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통제감 수준의 고저는 경제적 곤란도가 높은 경우에만 불안 수준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즉, 경제적 곤란도가 가장 높아도, 자신의 삶에 대해 통제감을 가지는 실직자들은 불안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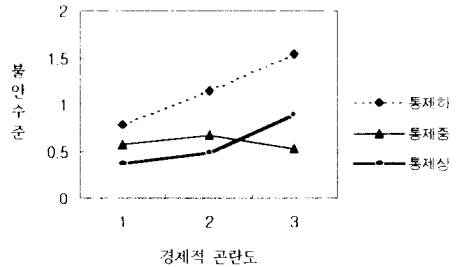


그림 2. 강인성-통제 차원과 경제적 곤란도의 불안에 대한 상호작용효과

신체 반응에 대해서 경제적 곤란도와 귀인양식이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 $F=2.594, p<.05$ )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귀인의 평균값에서 내부귀인의 평균값을 뺀으로써 귀인의 두 차원을 단일 차원으로 통합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실직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응답자들을 ‘내부귀인’ 집단, 외부귀인을 강하게 하는 응답자를 ‘외부귀인 상’ 집단, 외부 귀인을 약하게 하는 응답자를 ‘외부귀인 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적 곤란도가 낮거나(1) 중간 정도(2)인 경우 귀인양식은 신체화 증상에 그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경제적 곤란도가 가장 심한 경우(3) 실직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릴수록 신체화 증상을 높게 나타냈다.<sup>9)</sup> 이같은 상호작용 분석 결과는, 귀인양식에서 내부귀인을 보다 많이 할수록 신체화 증

6)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의 표집수가 작았기( $N=21$ ) 때문일 수 있다.

7)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는 변인들의 하위집단별 평균값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8) 변량분석 사후 다중비교(Post Hoc Multiple Comparison, Duncan) 결과, 통제 ‘상’과 ‘중’에서의 불안 수준과 통제 ‘하’간의 불안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상을 많이 나타내리라는 <예언5-2>를 경제적 곤란도가 높을 경우에 한정되어 지지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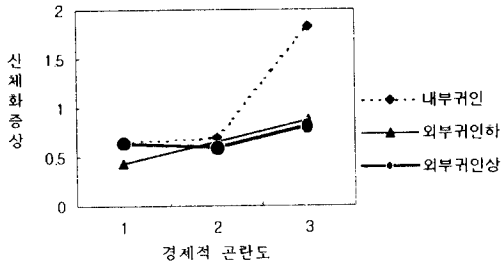


그림 3. 귀인양식과 경제적 곤란도의 신체 반응에 대한 상호작용효과

### V. 논의

본 연구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직에 대한 개인의 인지, 정서, 신체화 반응과 대처행동 방식이 개인특성과 사회적 지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직의 일차적 효과인 경제적 곤란도가 클수록 실직자들이 불안, 우울, 적대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했고 신체화 증상의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제적 곤란도가 높아진다고 재취업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는 않았다.

둘째, 실직자의 개인특성 변인 중 강인성의 통제 차원이 높을수록 불안과 적대감이 증가하고, 강인성의 통제와 도전 차원이 높을수록 재취업 기대를 높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강인성의 통제 차원은 경제적 곤란도와 상호작용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곤란도가 낮거나 중간 정도일 경우 실직자가 갖는 통제감 정도에 따라 불안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반면, 경제적 곤란도가 심한 경우 통제감이 높을수록 불안

수준을 낮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직자들이 갖는 강인성 차원 중 몰입 경향성이 높을수록 기능적 대처 행동은 많이 하고 역기능적 행동은 적게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감을 많이 가질수록 역기능적 대처행동을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직자들이 갖는 통제감은 개인의 역기능적 대처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몰입 성향은 기능적 대처행동의 촉진 효과와 역기능적 행동의 감소효과를 가짐을 시사해 준다.

셋째, 실직 후 자존감 저하가 클수록 개인은 불안, 우울과 적대감을 많이 경험하고, 신체화 증상도 보다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존감 저하는 대처 행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자존감 유지는 일차적 반응에서의 부정적 반응경향을 줄여주는 효과를 일관적으로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실직자들이 갖고 있는 귀인양식(외부귀인-내부귀인)은 경제적 곤란도와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즉, 경제적 곤란도가 높은 경우에만 외부귀인보다 내부귀인을 많이 할수록 신체화 증상을 높게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Winefield 등(1992)이 실직에 대한 내부 귀인이 부정적 반응과 관련된다는 귀인이론적 주장에 전제조건(즉, 경제적 타격을 수반하는 실직의 경우)이 부가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분석결과이다.

다섯째, 실직자가 갖는 구직효능감은 재취업 기대와 기능적 대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구직망의 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공적으로 다양한 구직활동을 해낼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인 '구직효능감'이 높을수록 구직 활동을 많이 하며, 재취업률이 증가했음을 보고한 Kanfer와 Hulin(1985)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준다. 즉 높은 구직효능감은 개인의 재취업 기대와 재취업 노력에

9) 변량분석 사후다중비교 결과, 경제적 곤란도가 가장 심한 경우 외부귀인 '상'과 '하' 집단간 차이는 없었으나, 외부귀인 집단과 내부귀인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영향을 미치며, 이후 실재의 재취업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여섯째, 기존인 남성 실직자들의 경우에 한해서 성역할관이 전통적일수록 기능적인 대처행동의 한 측면을 나타내는 구직망의 폭이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약하나마 성역할관의 탈 전통화가 구직 활동에 순기능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일곱째, 실직자의 배우자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 중 정서적 지지는 부정적 정서와 신체화 증상에, 도구적 지지는 재취업 기대와 기능적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 중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의 두 차원이 각기 다른 반응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덟째, 실직자가 체험하는 종교적 지지는 실직자들의 기능적 대처행동의 증진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홉째, 실직의 이차적 결과 중에서 부정적 정서는 역기능적 대처행동을, 신체화 증상은 기능적 대처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재취업 기대는 대처행동에 대해 독립적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열번째, 개인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상호작용효과들 중,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인들은 조절효과보다는 직접효과를 가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실업자의 경험에 관한 양대 이론인 박탈이론(또는 비타민 이론)과 행위자 제약이론(agency restriction theory)에 대해 양시론적 판정을 제공해 준다. Jahoda(1981)의 박탈이론은 실업으로 인해 취업(즉,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고용상태)이 제공하는 금전적 이득과 심리적 이득들(예로, 하

루일과의 구조화, 타인과의 접촉, 정체감 확인 등)을 박탈당하며, 실직자를 환경에 의한 수동적 희생자로 보았다. 박탈이론을 정교화한 비타민 모델(Warr, 1987)도 실업은 고용상태가 제공해주는 기능적 특성(금전적 가용성, 물리적 안전, 가치 있는 사회적 지위, 통제 기회, 기술 사용 기회, 타인 접촉 기회 등)의 결핍을 가져 온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이들 환경적 기능 특성들은 신체적 건강에 비타민이 갖는 효과와 마찬가지로 결핍되면 정신적 건강에 해를 준다고 가정한다.<sup>10)</sup>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경제적 곤란도가 정서적, 인지적, 신체화 반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박탈이론의 기본전제를 뒷받침해준다고 볼 수 있다. 박탈이론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제시된 Fryer과 Payne(1986)의 행위자 제약이론은 실업의 절대적인 부정적 결과를 반박하고, 상황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자리잡게 하여 실업자를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인 주체자로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부정적 반응의 감소에 미치는 개인특성의 직접효과 및 조절효과(즉, 경제적 곤란도와와 상호작용효과)는 행위자 제약론의 주장을 지지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양시론적 결론은 Turner, Leana와 Feldman(1993)의 스트레스 대처이론(stress coping theory)을 지지해준다. 즉, 실업이란 환경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의 대처자원의 부족을 의미하기에 강한 스트레스 유발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특성(강인성, 자존감, 자기효능감)이나 사회환경특성(중요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에 기반한 대처자원을 구비하면 보다 덜 부정적 반응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실업자들이 보일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학문적, 실용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실직에 대한 개인특성 요인, 정서, 인지, 신체화 반응 및 대처 행동들간의 상호관

10) 이 모델은 실업의 의미를 아홉 가지 환경적 기능 특성상에서 평정하여 직업별, 개인별 차이를 설명하게 해주는 틀을 제공해 주며, 실업자가 실직 전에 가졌던 직업의 환경적 기능 특성이 어떠한지냐에 따라 그 직업을 잃었다는 것의 구체적 사실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박탈이론보다는 보다 정교한 이론이다.



련성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실직에 대한 개인 반응에 관해서 통합적 설명을 시도하였다. 실직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은 제한된 관련변인들만을 선별적으로 고려했거나 몇몇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Winefield 등, 1995), 적지 않은 크기의 표본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련변인들을 고려하여 실직에 대한 개인의 반응 경향성을 살펴본 본 연구는 실직자에 대한 심층 연구에 유용한 실증자료를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

둘째, 경제적 곤란도, 개인특성 변인 및 사회적 지지 중 어떠한 영역이 개인으로 하여금 실직의 부정적 영향에 취약하게 하는지 혹은 그러한 영향권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박탈이론, 좌절-공격성 가설(Catalano 등, 1993)이나 무기력론(Darity와 Goldsmith, 1993)이 주장하듯, 실직의 일차적 영향은 경제적 곤란도로 나타나고, 이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실직자의 부정적 반응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경제적 곤란도만 갖고는 개인의 반응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며, 경제적 곤란도 이외의 개인특성 변인과 사회적 지지 변인 역시 개인의 반응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기대이론(Feather, 1992)이나 행위자 제약이론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경험적 자료를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

셋째, 개인특성 변인과 사회적 지지 등의 효과에 관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직의 충격완화 및 이에 대처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직자 개개인이 취약한 부분과 부적 경험 및 역기능적 대처 행동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 또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개개인에게 보다 더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오경자, 1998). 실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자기효능감 및 자존감을 고양시키는 것, 사회적 지지를 위한 연결망을 발달시키는 것, 그리고 구직기술을 증진시키는 것 등이 실직자들의 대처 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기법임이 경험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Caplan 등, 1997; Steinweg, 1990).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으로 설계된 연구이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실직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와 성역할관 변화, 그리고 정서, 인지, 신체 반응 및 대처 행동과 같은 변인들간 인과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확정적 답을 제공해 주지 못하였다. 하지만 광범위한 관련변인들을 고려한 경험적 연구가 부재한 현 단계에서는 이같은 횡단적 연구가 지니는 종단적 연구를 위한 첫 걸음으로서의 연구유용성은 과소평가 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는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 변인의 효과를 검증할때 미혼 실업자가 제외되었고, 전체 응답자 중 남성이 80% 이상을, 대졸이 약 57%, 사무·관리직이 60%를 넘고 있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와 차별화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실업이 갖는 의미에 대한 직업별, 개인별 차이를 주장하는 ‘비타민 이론’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셋째, 몇몇 측정치가 갖는 신뢰도의 문제이다. 실직 전 자존감은 사후 회상적(retrospective) 측정을 통해 이루어 졌다는 측정상의 제한점이 있으며, 강인성의 세 차원의 경우 측정에 사용된 문항수가 적어서 신뢰도가 다소 불안정하였다.

넷째, 실직이라는 사건의 경험을 경제적 곤란도로만 측정하였다는 것이다. 실직 전 직책, 맡았던 일의 종류, 직무몰입, 담당업무의 가치, 사회-경제적 현재 여건, 가용한 일자리와 같은 변인들도 실직 이후 개인의 반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Fryer & Payne, 1986) 실직의 일차적 의미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을 고려해 볼 때, 후속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실직이 갖는 의미, 개인특성 변인, 실업자가 경험하는 정서, 인지, 신체 반응 및 대처 양식에 대한 포

팔적 고려를 토대로 한 이해와 함께 보다 정교화된 모형 설정과 이에 대한 중단적 검증이 필요하다. 한 예로, 연령, 실업기간, 실직전 직업유형, 학력 등에 따른 실직자 유형별로 적정 표집수를 설정하고 개인별로 구조화된 실업생활의 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실직자의 반응행동도 근본적으로 개인과 상황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심리적 미시변수들과 사회-경제적 여건과 관련된 거시변수간의 상호작용의 양상을 살펴보는 추후연구도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거시변수들도 개인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가 개인의 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주관적 측정치로 자료수집이 되어야 한다.<sup>11)</sup>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자기보고식 자료이기 때문에 경제적 곤란도, 개인특성 변인, 사회적 지지 및 개인의 반응에 대한 측정이 응답자의 주관적 지각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얻어진 반응은 사회적 규범이나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의 영향으로 인한 왜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배우자 자료도 함께 얻고자 시도하였으나, 극히 적은 반응자(n=10)로부터만 가능하였다. 배우자 자료의 분석 결과, 강인성, 부정적 정서(불안, 우울 및 적대감)와 정서적 지지는 적은 사례 수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배우자 자료간에 유의미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화 증상, 도구적 지지, 기능적 대처와 역기능적 대처는 본인과 배우자의 응답이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사회적 지지의 경우, 배우자가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당사자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보다 배우자가 제공한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의 역기능적 행동과 보다 높은 상관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보고 자료이외에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 친지 등으로부터 실직자의 개인 특성과 사회적 지지 및 개인 반응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관찰 자료를 얻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실직에 대한 대처와 재취업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실시하였을 때 과연 개인 특성들(자존감, 강인성, 귀인 양식, 성역할관, 구직효능감 등)이 훈련을 통해 증진되고 변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훈련에 따라 개인의 반응 또한 호전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김명언, 1998). 이러한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가 경험적으로 검증된다면, 개인이 겪는 실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고 재취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sup>12)</sup>

11) 주관적 자료와 객관적 자료의 우위성에 대한 논의는 일종의 고전적 논쟁이라 할 수 있다. 조직심리학에서도 70년대 초반에 이에 대한 논쟁이 절정에 이르렀다. 본 연구자들은 주관적 자료가 객관적 자료보다 개인의 행위에 보다 근접하여 영향을 주는 변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 회복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경제변수를 측정대상으로 하나 지극히 심리적 또는 주관적 변수이다. 왜냐하면 한 특정 개인이 어떻게 경기회복에 대해 전망하느냐(경제 전문가나 전문가기관 또는 다수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전망하느냐 보다) 그 개인의 행위에 가장(보다)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다만 동일인으로부터 수집된 주관적 변인들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이다.

12) 한 심사위원은 이같은 심리(학)적 접근방법에 대해 비경제(학)적이고 비합리적이어서 철저히 지양되어야 한다고 단정짓고 있다. 신규사업을 통한 고용창출이 실업을 감소를 가져온다는 사실에 대해 의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다른 접근방법에 대한 무조건적 또는 탁상공론적 거부는 지양되어야 한다. 미국 실업자들의 재취업 증진을 목적으로 개발된 심리학적 접근방법을 취한 JOBS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직자들은 통제집단의(즉, 다른 조건에서는 동일하면서 프로그램에는 참가하지 않은) 실직자들과 비교해서 2배의 재취업 성공, 매월 \$240의 추가수입, 높은 직장만족도, 낮은 이직률을 보였고, 연방 및 주정부에게도 일인당 약 \$9000의 재정기여를 했다(Caplan, Vinokur, & Price, 1997). 이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연구결과가 입증해 주듯이, 전문가에 의해 과학적으로 공들여 제작된 재취업 증진을 위한 심리(학)적 접근방법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경제(학)적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직한 개인에 대한 조직 수준과 정부 수준에서의 지원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리 해고나 기업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기업에서 제공하는 전직 알선이나 재취업 훈련 등과 같은 노력과, 실직자들을 지원하는 정부차원의 다양한 제도적 노력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개인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같은 연구를 통해 실업대란에 대한 효과적 대책수립을 이루어 내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몫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명언(1998). 조직감량의 희생자, 생존자 그리고 집행자. *경제 불황의 심리적 반응,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97-148.
- 오경자(1998). 실직이 개인의 심리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 *경제 불황의 심리적 반응,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67-95.
- 이효재.(1989). *가족과 사회*. 서울: 경문사.
- Abbey, A., Abramis, D. J., & Caplan, R.D.(1985). Effects of different sources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conflict on emotional well-being.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6, 111-129.
- Caplan, R. D., Vinokur, A.D., Price, R.H., & van Ryn, M.(1989). Job seeking, reemployment, and mental health: A randomized field experiment in coping with job lo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4, 759-769.
- Coates, D., Moyer, S., & Wellman, B.(1969). The Yurklea study of urban mental health: Symptoms, problems, and life events.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60, 471-481.
- Cook, D. G., Cummins, R. O., Bartley, M. J., & Shoper, A. G.(1982). Health of unemployed middle-aged men in Great Britain. *The Lancet*, 3, 1290-1294.
- Caplan, R. D., Vinokur, A.D., Price, R.H., & van Ryn, M.(1989). From job loss to reemployment: Field experiments in prevention-focused coping. In G.W. Albee & T.P. Gullotta (Eds.) *Primary Prevention Works: Issues in Children's and Families' Lives*, vol. 6, 341-379. Thousand Oaks: Sage.
- Folkman, S., & Lazarus, R. S.(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19-239.
- Fryer, D. M., & Payne, R. L.(1986). Being unemployed: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the psychological experience of unemployment. *International Review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35-278.
- Gore, S.(1978).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in moderating the health consequences of unemploym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157-165.
- Hobfoll, S. E.(1989). Conservation of resources: A new attempt at conceptualizing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4, 513-524.
- Holmes, D. S., & Rahe, R. H.(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 213-218.
- House, J. S.(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Reading, MA: Addison-Wesley.
- Jacobson, D.(1987). Models of stress and meanings of unemployment: Reactions to job loss among technical profession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4, 13-21.
- Jahoda, M.(1981). Work, employment and unemployment: Values, theories and approaches in social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36,

- 184-191.
- Jahoda, M.(1982). *Employment and Unemploy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ex, S. M., Cvetanovski, J., & Allen, S. J.(1994). Self-esteem as a moderator of the impact of unemployment.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9, 69-80.
- Kanfer, R., & Hulin, C. L.(1985). Individual differences in successful job searches following layoff. *Personnel Psychology*, 38, 835-847.
- Kasl, S.V., & Cobb, S.(1982). The experience of losing a job: Some effects on cardiovascular functioning.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34, 88-109.
- Kessler, R. C., Price, R. H., & Wortman, C. B. (1985). Social factors in psychopathology: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proces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6, 531-571.
- Kessler, R. C., Turner, J. B., & House, J. S.(1987). Intervening process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and health. *Psychological Medicine*, 17, 959-961.
- Kessler, R. C., Turner, J. B., & House, J. S.(1988). Effects of unemployment on health in a community survey: Main, modifying, and mediating effect. *Journal of Social Issues*, 44, 69-85.
- Kets De Vries, M. F. R., & Balazs, K.(1995). The downside of downsizing. *Technical Report*, ENT. INSEAD.
- Kieselbach, T., & Svensson, P. G.(1988). Health and social policy responses to unemployment in Europe. *Journal of Social Issues*, 44, 173-191.
- Kinicki, A. J.(1989). Predicting occupational role choices after involuntary job lo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204-218.
- Kinicki, A. J., & Latack, J. C.(1990). Explication of the construct of coping with involuntary job lo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6, 339-360.
- Kirchler, E.(1985). Job loss and mood.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6, 9-25.
- Kobasa, S. C.(1979). Stressful life events, personality, and health: An inquiry into hard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168-177.
- Latack, J., Kinicki, A. J., & Prussia, G. E.(1995). An integrative process model of coping with job los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 311-342.
- Lazarus, R.,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eana, C. R., & Feldman, D. C.(1988). Individual responses to job loss: Perceptions, reactions, and coping behavior. *Journal of Management*, 14, 375-389.
- Leana, C. R., & Feldman, D. C.(1990). Individual responses to job loss: Empirical findings from two field studies. *Human Relations*, 43, 1155-1181.
- Leana, C. R., & Feldman, D. C.(1992). *Coping with Job Loss: How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Respond to Layoffs*.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Leana, C. R., Feldman, D. C., & Tan, G. Y.(1998). Predictors of coping behavior after a layoff. 85-97.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9,
- O'Brien, G. E., & Kabanoff, B.(1979). Comparison of unemployed workers on values, locus of control, and health variables. *Australian Psychologist*, 14, 143-154.
- Payne, R. L., & Hartley, J.(1987). A test of a model for explaining the affective experience of unemployed men.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0, 31-47.

- Prussia, G. E., Kinicki, A.J., & Bracker, J. S.(1993).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sequences of job loss: A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using Weiner's(1985) attribution model.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 382-394.
- Quinn, R. P., & Staines, G. L.(1979). *The 1977 Quality of Employment Survey*. Michigan: ISR.
- Rife, J., & Kilty, K.(1990). Job search discouragement and the older worker: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Journal of Applied Social Sciences*, 14, 71-94.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aufeli, W. B.(1992). Unemployment and mental health in well- and poorly- educated school-leavers. *On the Mysteries of Unemployment*. The Netherlands: Kluwer.
- Shamir, B.(1986). Self-esteem and the psychological impact of unemploymen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9, 61-72.
- Shams, M.(1993).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unemployed British Asian men.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1, 175-186.
- Shams, M., & Jackson, P. R.(1993). Religiosity as a predictor of well-being and moderator of the psychological impact of unemploy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6, 341-352.
- Siegert, R.J., Chung, R. C., & Taylor, A. J.(1990). Unemployment, stress and social support. *Community Mental Health in New Zealand*, 5, 49-59.
- Spence, J. T., & Helmreich, R.(1988). *Instrumentation Kit*. University Association, Inc. San Diago.
- Steinweg, D. A.(1990). Implications of current research for counseling the unemployed.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27, 37-41.
- Vinokur, A., Caplan, R. D., & Williams, C. C. (1987). Effects of recent and past stress on mental health: Coping with unemployment among Vietnam veterans and non-veteran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7, 710-730.
- Vinokur, A., & Price, R.(1991). *JOBS II Survey*. ISR : Michigan
- Wanberg, C. R., Watt, J. D., & Rumsey, D. J. (1996). Individuals without jobs: An empirical study of job-seeking behavior and reemploy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1, 76-87.
- Warr, P. B.(1983). Work, jobs, and unemployment. *Bulletin of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36, 305-311.
- Warr, P. B.(1987). *Work, Unemployment, and Mental Health*. Oxford: Clarendon Press.
- Winefield, A. H.(1995). Unemployment: Its psychological costs. *International Review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0, 169-212.
- Winefield, A. H., Tiggemann, M., & Winefield, H. R.(1992). Unemployment distress, reasons for job loss and causal attributions for unemployment in young people.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65, 213-218.

1 차 접수 : 1999년 3월

수정본 접수 : 1999년 7월

부록 1.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는 변인들의 하위집단별 평균값

경제적 곤란도	부정 정서-불안			신체화 증상		
	통제1	통제2	통제3	내부귀인	외부귀인1	외부귀인2
1	.78	.56	.36	.65	.42	.63
2	1.15	.66	.48	.69	.64	.59
3	1.54	.52	.89	1.83	.87	.81

부록 2.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

	M	S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경제적 곤란도	3.6522	1.0067												
2. 외부 귀인	.7307	.4859	.3121c											
3. 내부 귀인	.3443	.3602	.1049	.2658c										
4. 재취업 기대	60.5465	27.6277	-.0966	-.0065	-.1412a									
5. 자존감 저하	.5658	.8967	.1429a	.1875b	.2075b	-.2104c								
6. 성역할관	5.4567	1.3864	.0539	-.1373a	-.0411	-.0071	-.1222							
7. 불안	.7557	.7406	.2748c	.2221c	.3624c	-.1889b	.3591c	-.1324a						
8. 우울	.9224	.7562	.2703c	.2321c	.3770c	-.2678c	.4433c	-.1147	.8769c					
9. 적대감	.6793	.6901	.2418c	.2546c	.3439c	-.1340a	.2877c	-.1337a	.8578c	.8274c				
10. 신체화 증상	.6502	.6573	.2336c	.1494a	.2475c	-.1498a	.2754c	-.0836	.6092c	.5718c	.5946c			
11. 가능성적 대처	2.2439	.5909	.2498c	.1982b	.0771	.0642	.0814	.0035	.0864	.0907	.1148	.1711b		
12. 역기능적 대처	1.0817	.6659	.1523a	.2615c	.2719c	-.0871	.1330a	.0820	.3093c	.4118c	.4578c	.3534c	.1907b	
13. 구직망	2.7209	1.4654	.2340c	.1912b	.1276a	.1569a	.0647	-.1810	.0823	.1284a	.0929	.0174	.2568c	-.0382
14. 강인성-도전	4.1418	1.1647	-.0240	.0810	.0998	.1969b	-.0316	-.0668	-.0266	-.0270	.0243	-.0035	.1019	-.0219
15. 강인성-몰입	5.3965	.9374	.1336a	-.0356	-.0840	.1140	.0299	.1054	-.0674	-.0870	-.1228a	-.0622	.2515c	-.1062
16. 강인성-통제	4.5908	1.0653	-.0896	-.1527a	-.2544	.2428c	-.2535c	.0383	-.3338c	-.3332c	-.2885c	-.2683c	-.0079	-.3099c
17. 강인성	4.6974	.6704	-.0159	-.0699	-.1469a	.3084c	-.1659b	.0265	-.2559c	-.2619c	-.2221c	-.1990b	.1546a	-.2508c
18. 정보/도구지지	4.3373	.9820	-.0883	.0680	-.1212	.1608a	-.0345	-.0464	-.2598c	-.2858c	-.2655c	-.3409c	.0643	-.1668a
19. 정서/자존감 지지	5.1926	1.1360	-.2392b	-.1365	-.2907c	.1819a	-.1012a	-.1177	-.0809	-.1138	-.0763	-.2161b	.1234	.0195
20. 구직효능감	4.3862	1.0404	.0559	.0589	-.2076b	.4210c	.0555	.0577	-.1251a	-.1612a	-.0780	-.1075	.3402c	-.0069
21. 종교적 지지	2.7269	2.6219	-.0009	-.0750	-.0586	.0925	-.0106	.0627	.0832	.0875	.0774	.0701	.2081b	.0006
22. 연령	38.3881	9.4484	-.1274a	-.1907	-.0186	-.3431c	-.0348	.3345c	.0032	.0243	.0102	-.0459	.0006	-.0424
23. 성별	1.1822	.3967	-.0323	-.0528	.0215	-.0126	-.0505	-.3491c	.0266	.0202	-.0085	.0716	-.0948	-.1277a
24. 혼인상태	1.7528	.4322	.0046	-.0484	-.1201	-.2936c	-.0131	.2309c	.0639	.0657	.0961	.0551	.0119	.0047
25. 학력	4.4644	.9586	-.1210	.0472	-.1067	.0447	-.0275	.0816	-.1108	-.0781	-.1014	-.0804	-.0041	-.1349a
26. 실직 기간	4.0038	3.5882	-.0304	-.2013b	.0392	-.0879	.1091	.0868	.1116	.1773b	.1791b	.1549a	.0008	-.0276
27. 근속기간	126.0989	113.1648	-.2017b	-.2974c	.0542	-.3799c	-.0057	.2757c	-.0085	.0208	.0022	-.0215	.0236	.0248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3. 구직망														
14. 강인성-도전	.1330a													
15. 강인성-몰입	.1165	.2170c												
16. 강인성-통제	-.0479	.0401	.0424											
17. 강인성	.1452a	.6400c	.5616c	.6754c										
18. 정보/도구지지	.0121	.0152	.0418	.1118	.0960									
19. 정서/자존감 지지	-.0404	.0230	.1458a	.2708c	.2420c	.4731c								
20. 구직효능감	-.1742b	.2677c	.3500c	.1120	.3621c	.0525	.1920b							
21. 종교적 지지	-.1071	-.1835b	.0539	.0507	-.0407	.0450	.0316	-.0328						
22. 연령	-.1085b	-.1287a	.1072	-.0616	-.0605	-.0217	.0955	-.0797	.3279c					
23. 성별	.0644	-.0428	-.1281a	-.1066	-.1491a	-.1478a	-.0206	-.1475a	-.0595	-.4811c				
24. 혼인상태	-.1438a	-.0750	-.0828	-.0794	-.1258a	.0451	.0847	-.1375a	.1349a	.5635c	-.3563c			
25. 학력	.0447	.1074	.0842	.0807	.1460a	-.0230	.0777	.1041	.0692	.3265c	-.3211c	.0852		
26. 실직 기간	-.0520	.0094	.0245	.1103	-.0563	-.1557a	-.1131	.0671	.1093	.2767c	-.1346a	.1951b	.2255c	
27. 근속기간	-.2266c	-.1590a	.1023	-.1523a	-.1374a	-.1128	.0578	-.1335a	.2546c	.7405c	-.2447c	.4041c	.1375a	.2267c

a: p<.05, b: p<.01, c: p<.001, d: 남자, 여자, c: 미혼, 기혼, f: 개월 수로 측정

## **Psychological Distress, Cognitive Reaction, Somatization and Coping Behavior of the Unemployed**

**Kim, Myung Un · Roh, Youn-he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involuntary job loss on the unemployed's reactions(emotional, cognitive, and somatization) and coping behavior(functional, dysfunctional and the width of job-seeking network), depending upon individual characteristics(such as hardiness, self esteem, sex-role attitude, job-seeking efficacy, and attributional tendency) and social support(emotional, instrumental and religious). Using a survey questionnaire, data were collected from 270 unemployed.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1) Financial distress had significant effects on psychological distress and somatization, but not on the reemployment expectation: 2) Three dimensions of hardiness had significant, but different effects on individual reactions and coping behavior of the unemployed: 3) Negative change in self esteem after job loss was positively related to psychological distress and somatization: 4) job-seeking efficacy tended to increase the width of job-seeking network, reemployment expectation and functional coping behaviors: 5) traditional sex-role attitude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width of job- seeking network among the married male unemployed. 6) Emotional support from spouse was found to decrease the psychological distress and somatization of the unemployed, whereas instrumental support increased their reemployment expectation and functional coping behavior. 7) Two interaction effects were found significant. Thes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both deprivation theory and agency restriction theory are equally valid.